

(공익재단법인) 야마가타현 국제교류협회 다언어 정보지

# Face to Face

야마가타현 국제교류원(CIR)의 야마가타 체험기



쉬어 이안



김경하



츠이레 미로



백소범

야마가타현 내외의 외국 출신의 여러분께

야마가타의 역사나 문화를 우리들의 체험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 1 야마가타에서의 체험① 덴도에서 메밀면 만들기
- 2 야마가타에서의 체험② 장기알 조각 체험
- 3 야마가타 소개① 야마데라
- 4 야마가타 소개② 갓산
- 야마가타에서의 체험③ 꽃감 만들기
- 5 CIR의 활동 소개

Face to Face

홈페이지

Facebook

Instagram

야마가타현 CIR

Instagram

(공익재단법인) 야마가타현 국제교류협회(AIRY)

우편 번호 990-8580

주소 야마가타시 조난마치 1-1-1 가조 센트럴 2층

TEL 023-647-2560 FAX 023-646-8860

이메일 cir@airyamagata.org

URL http://www.airyamagat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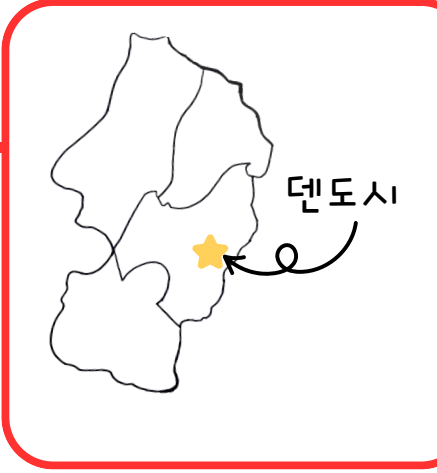


# 야마가타에서의 체험①

## 1 덴도에서 메밀면 만들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국제교류원 백소범입니다.

4월에 헤이룽장 성에서 야마가타로 온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체험은 저와 벨기에 국제 교류원인 미로랑 같이 장기 마을 덴도 타워에서 메밀면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중국 출신으로, 메밀을 먹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직접 메밀면을 만든 경험은 없었습니다. 둘 다 초보자였기에 마지막에는 맛있는 메밀면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 가루를 반죽합니다

처음에는 가루 반죽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 주셨을 때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직접 해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힘을 어느 정도 주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휘젓다 보니, 손바닥이 가루로 범벅이 되어 마치 진흙 놀이를 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메밀 반죽을 핍니다

그 후, 반죽 펼치기 과정입니다! 이 과정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와 미로는 열심히 밀어도 계속 두꺼워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적당한 두께가 되었습니다.



메밀면 완성

그리고 드디어 자르는 작업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굵기로 자르면 돼'라고 선생님께서 상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른 메밀면은 마치 '메밀면'과 '우동면'의 어딘가의 존재 같았습니다. 미로도 다양한 굵기의 '창작 메밀면'을 만들어 냈습니다. 둘이서 만든 메밀면을 나란히 봤을 때 '이건 무조건 개성 있는 맛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은 삶아서, 이제 시식입니다! 솔직히 보기에는 좀 불안했지만 한입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메밀면의 굵기도 식감도 다양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재미있었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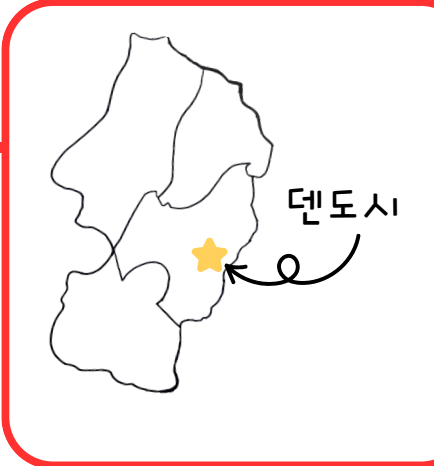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미로랑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음에는 어떤 체험을 할지 다음 도전이 기대됩니다.

# 야마가타에서의 체험 ②

## 장기알 조각 체험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국제교류원의 쉐어 이안입니다.

7월 말에 콜로라도 주(州)에서 야마가타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장기를 아시나요? 장기는 일본에 옛날부터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장기알'은 글자가 적힌 5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도시의 특산품으로 국내 생산량의 90% 이상이 덴도시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경하와 함께 장기 마을 덴도 타워에 가서 장기알을 만드는 체험을 했습니다. 먼저, 장기알에 쓸 좋아하는 한 글자를 정합니다. 저는 이번 체험이 즐거웠으면 해서 '락(樂)'을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장기알에 글씨를 썼습니다. 진짜 장기알은 작은 사이즈이지만 체험에서는 장식용인 큰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주먹밥 정도의 사이즈로 손으로 잡기 편했습니다. 들었을 때 나무의 무게가 느껴져 질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글자를 쓴 후에 조각칼로 장기알의 표면을 깎았습니다. 깎을 때 어깨에 힘을 빼지 않으면 멋진 글씨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만, 집중하면서 힘을 빼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조각도**



글자를 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농담과 함께 재미있고 즐겁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중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라고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는지 실패했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깎다 보니 생각보다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은 앞으로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멋진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완성된 장기알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장기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고 멋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방에 장식하고 싶습니다. 첫 야마가타의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알을 만들었으니 다음에는 장기 두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덴도시에서는 매년 4월 중순에 '덴도 벚꽃 축제 인간 장기'가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



파고 난 뒤



선생님과 함께!



멋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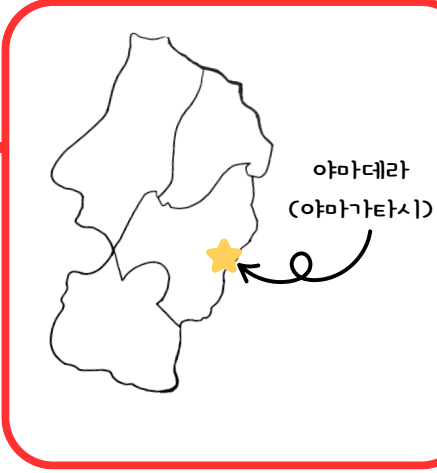
### 3 야마가타의 소개① 야마데라



야마데라의 풍경

처음 뵈겠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국제 교류원인 미로입니다. 8월에 영어권 국제 교류원으로 일본에 와서, 야마가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야마데라에 올라갔습니다! 야마가타에 온 이후로 두 달이 지났지만, 한창 더운 여름에 도착해서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지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점점 가을로 변하는 시기에 야마가타현 국제 교류원 모두와 함께 야마데라에 올라서 최고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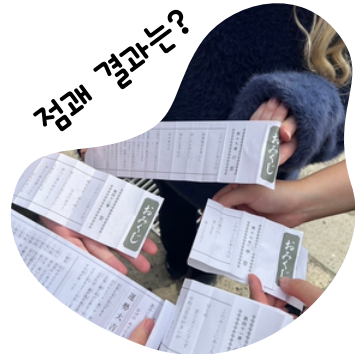
야마가타시에 있는 야마데라는 보주산(宝珠山) 안에 있는 천태종의 절로, 전설에 따르면 약 1200년 전에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름은 '입석사(立石寺)'이지만, 일본 내외에서는 '야마데라(山寺)'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야마데라'라고 들으면 어떤 장소일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입구에는 한가롭게 늘어져 있는 고양이들을 부러워하며 용기를 내어 산을 올랐습니다. 1015단의 돌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힘내서 빨리 산 정상까지 가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힘을 주면서 올라가서 그런지 절반이 지나자 벌써 숨이 차 버렸습니다. 덕분에 휴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야마데라의 아름다움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석등과 석상 장식과 커다란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숲의 아름다운 녹음을 바라보면 옛 수행승이 느낀 것처럼 야마가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체통입니다!>  
야마데라의 산 정상에서 편지를 보내 보지 않겠습니까?



점괘 결과는?

산꼭대기 안쪽의 절에 도착하면 점괘를 뽑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길(吉)'을 뽑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늦어도 온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벌써 2년 전부터 점괘를 뽑을 때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FTF를 읽고 있다면 “시간을 지켜주세요!”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서 내려갈 때는 다리가 젤리처럼 떨렸습니다. 가까운 휴게소의 족탕에 들어가 살살 녹는 느낌을 느끼며 야마데라 등산을 종료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족욕으로 휴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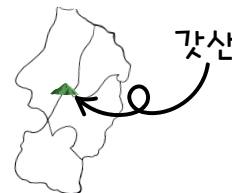


# 경하의 소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국제 교류원 경하입니다. 야마가타에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야마가타를 만끽한 제 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 야마가타의 소개② 갓산



산의 정기를 받고 있습니다!!

야마가타에는 명산인 갓산이 있습니다. 갓산은 11월이 되면 눈이 내려서 입산을 할 수 없습니다.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입산을 할 수 있기에 저도 등산 금지가 되기 전에 얼른 다녀왔습니다. 평소 걷는 정도의 운동만 하는 저는 입구까지 가는 길만으로도 지쳤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빛으로 펼쳐진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 찬 공기, 산의 정기로 구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꽃보다 경단(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산에 올라왔으니 신선한 공기와 함께 초콜릿과 사과, 주먹밥 2개, 방울토마토, 포도, 마지막으로 컵라면까지 먹었습니다. 뭔가 조금도 살이 빠지지 않은 기분으로 건강하게 내려왔습니다. 또 내년에도 오르고 싶습니다.

산에서 먹는 라면은 최고!



뜨거운 물을 가져왔습니다.



## 야마가타에서의 체험③ 곱감 만들기



껍질을 벗기고 완성!

야마가타에는 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감을 말리는 집도 자주 보입니다. 저도 곱감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곱감은 껍질을 벗긴 감을 사용합니다. 껍질을 벗긴 감의 맛은 마치 몸의 수분이 전부 빠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껍질벗겨진 감 체험은 어떠세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웃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곱감을 만드는 과정은 먼저 빙글빙글 껍질을 벗기고 끈으로 묶어서 뜨거운 물에 한 번 넣어 완성입니다. 그리고 두 달 정도 말리면 달콤한 곱감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빨리 곱감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우 설렙니다♥



끈에 묶기 위해 잘랐습니다.

이상! 휴일의 저의 체험 소개였습니다!

2024년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 5 CIR의 활동 소개

## 다양한 곳에 나가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소개 강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류회

관광 단체, 현립 도서관, 현 경찰 학교

외국어 수업 또는 교실

시정촌의 국제교류협회

## ☆☆☆ 활동 사례 ☆☆☆

### 1 고자~레 광장 (가호쿠초)

외국의 역사나 문화를 통해서 국제 이해의 촉진과 기초 영어 실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즐거운 영어 회화 사업」

- 벨기에 음식과 풍경 소개
- 벨기에의 학교 소개
- 영어로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

- 파견 의뢰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의 교류인과 교류를 할 수 있다.
- 벨기에의 실정을 알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 2 치도관 중학교 (쓰루오카)

글로벌 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른 문화 이해와 국제 이해를 증진시키는 '치도관 Global JAM'.

- CIR(국제 교류원)의 모국과 문화 소개
- 일본과의 습관의 다른 점 소개
- 각 CIR의 모국어에 의한 회화 교실

〈이용자의 목소리〉

-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나 습관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국제 교육에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CIR 여러분 덕분에 Global JAM은 대성공이었습니다.



## 강좌 신청은 여기로

야마가타현에서는 국제화 추진을 위해 현내의 학교나 단체 등이 실시하는 국제 교류·국제 이해 촉진 사업 등에 CIR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여기로